

시장중심 무용학과 교과과정 모형 개발 제안

Suggestion of the Developing the Dance Major Curriculum on the Basis of Employment

최윤선

서울기독대학교 무용학과

Youn-Sun Choi(Julie5852@naver.com)

요약

이 연구는 무용관련전공 졸업생들의 취업률과 취업 경로를 분석해 현행 무용학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과과정이 무용전공 졸업생들의 취업 경로와 연관성이 있는가를 살펴보고 시장 지향적 무용전공 교과과정 모형개발을 제안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경인 지역 무용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10개 대학을 선정해 최근 3년 동안의 취업률, 취업 경로, 교과과정을 분석 했다. 이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무용관련전공 졸업생들의 취업률은 건강보험 가입 조건이 취업률 산정에 고려된 2010년도의 경우 20%대의 아주 낮은 취업률을 보였으며, 취업률의 비는 해마다 침체되고 있었다. 취업 경로는 무용관련 직종이 과반 이상을 차지했고, 무용과 관련 없는 사무관련 직종과 스포츠 직종도 일정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취직 경로에 맞춰 자격증 교과목, 신체 구조와 기능과 관련된 체육과목, 행정, 경영, IT와 관련된 교과목, 융·복합 교과목, 공연 기획 관련 교과목, 아동 및 노인 관련 교과목 개설의 다양성과 확장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취업 기반으로 개설된 교과목 중에 취업 시장에 기여하지 못하는 교과목은 이에 관련된 취업 시장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중심어 : | 무용 | 교과과정 | 취업률 | 취업 경로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make proposal an oriented-market curriculum of related dance major through analyzing the current curriculum and graduates' employment rate and occupational category of ten universities for last 3 years. This study suggested that Employment rate of the related-dance department graduates decreased considerably last year, which first asked health insurance for calculating employment rate compared with 2008, 2009 year. The occupational category which is related dance occupied over half of whole occupation and office and sport job were taken to scale. It was necessarily to set up subjects such as body structure and function, administration, management, IT, integration, performance project, pedologics, and gerontology to meet the demand of times. The development of new job market which is connected with related-job subjects will be needed to increase employment rate and variety of occupational category of graduates from dance department.

■ keyword : | Curriculum | Dance | Employment Rate | Occupational Category |

* 본 연구는 2010학년도 서울기독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습니다.

접수번호 : #111021-002

접수일자 : 2011년 10월 21일

심사완료일 : 2011년 12월 06일

교신저자 : 최윤선, e-mail : Julie5852@naver.com

1. 서론

교과과정이란 교육의 과정에서 그 목표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무엇을 선정해서 어떻게 조직하여 가르칠 것인가를 종합적으로 묶은 교육 전체 계획이다[5]. 이는 학교의 지도하에서 학습자에 의해 학습되는 모든 지식, 기능 또는 학습에 의해 시행되는 경험과 활동을 일정한 순서로 배열해 놓은 교육 내용의 계획이다.

학습자는 교과과정을 통하여 전문 지식과 경험을 학습해 전문인으로서 소양을 넓혀갈 뿐만 아니라 장차 직업인으로서 사회 적응해 나가기 위한 덕목을 배양한다.

대학의 교과과정은 크게 교양과 전공으로 구분된다. 교양과정은 지성우위의 인간 양성에 본질적인 목표를 두는 반면, 전공과정은 대학교과과정의 핵심요소로서 지식의 창출, 전수, 활용으로 대변되는 대학의 기능적 특성에 방점을 두고 있다[12]. 교과과정 개발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주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교육목표와 관련되어야 한다[10]. 따라서 교육 목표에 따라 대학의 교과과정은 달라진다 할 수 있다. 오늘날 대학은 학문적인 목표뿐만 아니라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대학이 사회의 요구를 반영하느라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즉 작금의 대학교육은 학문적 깊이와 순수함을 견지해 살아남아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함과 동시에 취업에 관심을 갖고, 직업인 육성에 역할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대학은 교과과정을 통하여 대학생들에게 전공별 분야의 다양한 진로를 제공해 주어야 하고, 교수들은 학생이 진로를 개척함에 있어 안내자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 학생이 희망하는 진로를 인식하고, 탐색하여 진로를 준비하는 모든 학생에게 다양하고 체계적인 교과과정과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대학교육에서 무용교육이 실시 된지 50여년이 지난 현재 각 대학의 무용관련 학과에서는 무용교육이 지향해 나갈 지표로서의 교과과정이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많은 연구에 힘써왔다. 그러나 우리나라 무용의 교육 목표는 지도자, 예술가 양성에 전통적으로 관심을 두고 있는데[10], 이 교육 목표하의 교과과정이 과연 급변하는 사회 요구 조건을 충실

히 반영하고 있는가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다시 말해 현재 무용교육을 위해 각 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과과정이 대학의 기능인 지식 창출과 직업인 육성에 적절한가에 대한 분석은 미래 지향적인 교과과정의 개발에 의미 있는 일이라 할 수 있다.

그동안 무용학과 교과과정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시각에서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다.

한미 대학 무용학과 교육과정 비교를 중심으로 대학 무용학과 교과과정 개발을 위한 기초조사 연구[10], 설문을 통해 무용교과과정이 졸업 후 사회활동 범위에 미치는 영향과 무용교과과정에 나타난 문제점과 대응책을 제안하기 위해 대학원교과과정의 만족도에 대한 인식과 문제점 및 개선 방향을 제시한 연구[13] 등이 있다. 또한 무용학과 대학원 교과과정 체제 분석에 의한 전공별 진로 방향 모색을 위해 서울 소재 및 경인지역 8개 대학을 중심으로 분석해 현행 무용프로그램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각 지역의 특성 및 사회적 요구에 맞는 차별화, 특성화를 통하여 변화의 상황에 맞는 무용프로그램의 개선 및 개발, 관리에 대한 방향을 제시한 연구[14]와 무용전공 대학생의 취업인식도 및 교과과정 조사 연구를 통해 교과과정 만족도를 조사하여 무용관련 분야의 직업을 제시한 연구[3] 등이 이루어졌다. 그 밖에 사회 활동에 필요한 무용교과과정에 대한 연구[11], 무용전공 대학생들의 취업인식도 및 교과과정 조사연구[3], 무용전공특성에 따른 직업기대에 관한 연구[1], 무용 교과과정에 대한 견해 차이에 따른 취업기대 분석[4], 대학 무용교육 교과과정에서의 지도자 양성을 위한 방향 모색 등의 연구[16]가 수행되었다.

한편 취업과 실제적으로 연관해 시도한 연구는 무용전공학생의 진로성향과 교과과정의 연계성 강화 방안에 관한 연구[15], 대학무용학과의 교과과정과 취업에 대한 연구[2], 직업무용단 웹사이트 연구[18] 등이 수행되었다. 그렇지만 이들 선행연구들은 주로 수요자의 만족도와 인식도에 의존했거나, 시장조사의 객관성 확보 결여 등으로 인해 사회 요구에 맞춘 교과과정의 개선 방안 제안에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해 실제 취업 경로와 실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지 않고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로 인해 미래 지향적인 교과과정 개편에

대한 방향 제시를 위한 현실적이고 시장 가치적인 내용은 미흡한 실정이라 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학은 대학교육의 근간인 지식 창출과 직업인 양성을 충실하게 달성하기 위해서는 대학교과과정은 사회 변화와 요구에 끊임없이 대처하여야 하며, 사회 수요를 반영해야 한다. 사회에서 요구하는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대학이 교과과정을 개편하여 관련 전문가를 양성하는 등 사회에서 요구하는 인력 양성을 위해 취업 시장과의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적극적인 변화의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사회의 요구에 따른 교과과정이 진로와 연관되어야 하고, 또한 사회 수요를 반영해 취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대학에서 교과과정을 새롭게 구축하는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현행 무용학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과과정을 분석하고, 무용전공 졸업생들의 취업 실태인 취업률과 취업 경로를 분석해 무용전공 졸업생들의 취업 시장을 반영한 미래 지향적인 무용관련 전공 교과과정의 개선, 개발 및 운영에 대한 모형을 제안하고자 한다.

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이 연구를 위해 서울, 경기도 소재한 4년제 대학 중 무용학과를 개설한 10대학을 편의표본 추출법 (convenience sampling method)을 이용 선정했다.

2. 조사 절차

본 연구에서는 무용학과 현행 교과과정을 분석하였고, 무용 졸업생들의 취업률과 취업 경로를 조사했다. 교과과정 분석을 위해 선정된 대학의 교과과정은 대학 요람과 각 대학 학과 사무실을 통해 수집되었다. 취업 실태 분석을 위해 취업률 조사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정보공시센터 대학 알리미 사이트[17]를 이용해 조사되었으며, 취업 경로 분석은 선정된 대학의 취업 센터를 방문해 자료를 수집 분석했다.

터를 방문해 자료를 수집 분석했다.

3. 분석 범위 및 방법

교과 과정 분석은 2010년 개설한 것을 기준으로 전공 개설 과목을 이론과 실기를 구분해 영역별로 분류한 후 과목을 배치해 채택 학교 수를 파악했으며, 취업률 조사는 최근 2010, 2009, 2008년도 졸업생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년도 별 평균을 제시했다. 취업 경로 또한 취업률 조사와 같이 최근 3년간을 분석했으며, 직종별로 비율을 조사했다. 다만 대학 사정으로 인해 년도 별로 취업 경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한 대학의 자료는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III. 결과

1. 취업률

[표 1]는 본 연구에서 조사된 10 대학의 최근 3년간 취업률을 나타낸 것이다.

표 1. 각 대학의 년도 별 취업률

대학	2010년도	2009년도	2008년도
A	24.1	66.7	75.0
B	36.4	96.9	94.1
C	25.0	92.6	91.9
D	24.0	59.4	92.3
E	28.0	87.5	80.8
F	7.1	65.2	70.0
G	36.4	61.8	92.3
H	20.0	52.2	75.0
I	19.2	79.2	73.1
J	20.0	30.6	56.4
평균± 표준편차	24.0± 8.6	69.2± 20.2	80.1± 12.4

[표 1]의 취업률 조사는 2010년도의 경우 취업률(%)은 취업자/(졸업자-(진학자+입대자+취업불가능자+외국인 유학생+건강보험 직장가입 제외대상))*100로 산출된 값이며, 2008년과 2009년도는 취업률(%)은 취업자/(졸업자-(진학자+입대자+취업불가능자+외국인 유학생)) *100을 기준으로 산출한 값이다. 즉 2008년과 2009년에는 직장 건강보험 가입 여부를 고려치 않고 취업률

이 산출되었으며, 2010년부터는 직장 건강보험 가입자만을 취업자로 인정한 조사이다. 취업자는 정규직+정규직(대기발령)+ 비정규직(임시직)+비정규직(시간제, 일용직)+비정규직(무급가족종사자)+자영업을 나타낸다.

[표 1]에 의하면 2008년도 무용전공 졸업생의 경우 취직률 80.1%, 2009년도 69.2%, 2010년도 24.0%로 해가 갈수록 감소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물론 2010년도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건강보험 가입자만 취업률로 인정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취직률이 저조한 것으로 예측되지만, 이는 취직이 어려운 현 상황을 반영한 지표로도 추측할 수 있다. 이렇게 취업률이 해가 갈수록 침체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대학뿐만 아니라 무용계에서 다양한 대책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2. 취업 경로

[표 2]는 최근 3년간 무용전공 졸업생들의 취업 직종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의하면 무용전공 졸업생들이 가장 많이 취직하는 직종으로는 무용수로 조사되었다. 이와 같은 현상은 국공립 무용단이외에 사설 무용단에서 무용수들의 수요가 이어지는 결과라 보여 진다. 그 다음으로 무용학원 강사로 취업하는 졸업생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역시 무용수와 같이 실기 위주로 채용되기 때문에 무용을 전공하는 학생들에게는 적합한 직업군으로 볼 수 있다.

표 2. 최근 3년간 무용전공 졸업생들의 취업 경로

직종(인원)	(대학수)년도	2010	2009	2008	계	비율 (%)
		(8대학)	(6대학)	(5대학)		
무용 관련	유아 무용 강사	3	5	6	14	4.19
	초중고등학교 출강 무용 강사	2	5	6	13	3.89
	무용학원 강사	7	15	22	44	13.17
	문화원강사	6	7	7	20	5.99
	무용수	17	25	41	83	24.85
	무용가 및 안무가	7			7	2.10
	무용 의상		1	2	3	0.90
	댄스 강사	2		2	4	1.20

	유치원 교사	6	12	15	33	9.89
	보육 교사	2	1		3	0.90
소계						67.08
체육 관련	골프클럽 강사		1		1	0.30
	레크레이션 강사		1	1	2	0.60
	휘트니스 강사	3	3	7	13	3.89
	요가 강사	1	6	8	15	4.49
	소계					9.28
사무관 련	대학 조교	3	3	1	7	2.10
	비서	3	3		6	1.80
	회사 사무원	5	10	13	28	8.38
	협회및교육원사무원	3	7	5	15	4.49
	사회복지사	1	1		2	0.60
	은행원			1	1	0.30
	소계					17.67
	기타	행사 기획사	3	6	6	15
여행 및통역 안내원		1	2	1	4	1.20
음악학원 운영				1	1	0.30
소계						5.99
계		75	114	145	334	100

세 번째로 많이 취직되는 직종은 유치원 교사로 나타났다. 이 직종은 유치원 원생들에게 신체 활동의 일환으로 무용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식을 가질 수도 있는 개연성을 가진 것이 현실이므로 무용이외의 다른 지식에 대한 학습과 경험이 요구된다 할 수 있다. 네 번째로 무용전공 졸업생들이 취직한 직종 중에 하나가 회사 사무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직종은 전공과는 전혀 관계없는 취업 경로로 미스매치(mismatch)된 영역이라 볼 수 있다. 이와 비슷한 직종으로 교육관련 사무직의 일자리가 큰 비중은 아니지만 역시 졸업생들의 관심의 직종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 다섯 번째로 문화 학원 강사가 졸업생들이 취직하는 직종으로 조사되었다. 최근의 사설 문화학원 뿐만 아니라 각 시, 군, 구동에 주민을 위한 다양한 강좌 개설의 붐을 타고 무용전공 졸업생의 수요 증가에 따른 결과라

보여 준다. 그 밖에 스포츠와 관련 있는 요가 강사, 휘트니스 강사의 직종이 무용전공 졸업생들이 자리 잡는 취업 경로로 부각되고 있다. 조사 중에 관심을 끄는 직종 중에 하나는 행사 기획사였다. 아마 이 직종은 엔터테인먼트와 관련한 행사를 기획하고 공연하는데 무용전공 졸업생들이 매력을 느껴 도전하는 직종이 아닌가 생각된다. 눈에 띄게 나타난 비율은 아니지만 여행 안내원, 비서 직종에도 취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취직 경로를 전체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무용관련 직종이 67.08%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무용 전공과 전혀 관계없는 직종인 사무직으로 17.67%의 비율로 진출한 것으로 확인 되었다. 또한 체육관련 직종도 9.28%의 비율로 진출한 것으로 조사되어 향후 관심 있게 시장 개척을 해야 할 영역으로 고려된다.

3. 기존 교과과정 현황

아래 [표 3]은 기존 10개 대학 무용관련 학과 전공 교과과정을 분류해 개설대학수로 교과명의 빈도수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의하면 무용관련 학과의 교과과정은 다양한 학과목을 개설해 운영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론 과목에서 무용의 개념을 학습하기 위해 무용개론과 예술론이 가장 많이 개설한 교과목으로 나타났으며, 무용의 역사적 발자취를 연구하기위한 교과목은 한국, 동·서양사를 분류해 개설한 것이 일반적인 경향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철학과 관련된 무용미학은 10개 대학 중에 8개 대학이 개설할 정도로 무용전공 교과과정에 필수적인 교과과정으로 자리 잡았다. 무용 비평과 관련된 교과목은 작품 비평, 해설, 감상 등의 교과목으로 각 대학이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었다. 무용의 과학적 이해를 위한 교과목 개설은 이론 교과목 중에 가장 다양하게 교과목을 개설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에서도 무용 기능학 교과목이 많은 대학에서 개설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현상은 무용을 우선 동작의 원리를 살펴보고자하는 의도로 볼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교과목으로 동작분석, 무용움직임분석 등의 교과목도 눈에 띈다.

무대 예술과 관련된 교과목은 의상, 조명, 분장, 미술

등 다양한 교과목으로 각 대학이 개설하고 있으며, 어떤 특정한 교과목에 치중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무용음악과 관련된 교과목은 동·서양 음악 등 몇몇 교과명 명칭이 보이지만 무용음악이란 교과목을 개설한 대학이 많이 있다. 이는 아직도 무용전공에 음악의 역할이 세분화하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라 할 수 있다. 무용창작과 관련해 개설한 과목 중에 무용창작법과 무용즉흥, 안무법이 많은 대학에서 개설하고 있었다. 무용 교육 및 지도와 관련된 교과목은 무용교육 개론, 무용지도법이 다른 교과목보다 많이 선택되어 개설된 교과목으로 조사되었다. 한 개 대학에서만 개설되었지만, 산학협동교육이란 교과목도 개설되고 있었다.

체육관련 교과목은 각 대학이 집중적으로 특정교과목을 개설하고 있는 것은 없지만, 한 두 대학이 일부 교과목을 개설하고 있었다. 예를 치료와 관련한 교과목으로 무용 및 신체 요법 과목은 7개 대학이 개설할 정도로 무용 전공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교과목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었다. 성공적인 공연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운영의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관련교과목을 개설은 아직은 태동 단계라 할 수 있을 만큼 미흡했다.

단순한, 지식 습득과 실기 연마가 아닌 종합적인 지식과 사유 능력을 키우기 위한 융·복합 교과목 개설은 무용관련전공 학과에서는 아직도 미흡한 실정으로 조사되었다. 조사 결과 단지 한 대학에서만 이 시와 무용이란 교과목을 개설하고 있었다. 향후 이와 관련된 교과목 개발과 운영에 관심을 갖고 접근해야할 사안으로 보여 진다.

표 3. 교과과정 개설 과목과 채택 수

분류		교과 명(채택학교 수)
이론	개론	무용개(원)론(6), 예술론(이해)(4), 서양의 전통과 예술이론(1), 동양의 전통과 예술이론(1), 무용학입문(1)
	역사	무용사(2), 외국무용사(2), 한국무용사(4), 서양무용사(4), 현대무용사(1), 동양무용사(3), 무용예술사(1),
이론	철학	무용미학(8)
	비평	작품분석 및 비평(6), 무용작품해설(4), 비평 세미나(1), 무형문화재추진분석(3), 예술비평(1), 무용감상론(3), 무용비평(2)
과학	무용생리학(2), 무용표기법(1), 무용기능학(6), 무용심리(3), 무용기호법(1), 움직임의원리(1), 무용수의건강과영양(2), 무용해부학(1), 동작분석(표현)(3), 무용사회학(3), 무용의학(1), 무용인류학	

	(2), 무용측정평가(1), 동작분석과기보법(1), 동작과공간(1), 인체의 이해(1), 무용기보와실제(1), 무용윤리적 분석(1)	
무대예술	무대효과론(1), 춤과의상(2), 춤과이미지(1), 무용분장법(2), 스테이지디자인(2), 무대분장(2), 무대론(1), 무용의상론(1), 무대조명(1), 무대연기(1), 무대미술론(1)	
음악	무용음악(5), 동양무용음악연구(1), 서양무용음악연구(2), 리듬 훈련법(1), 동작과리듬(1), 타악연구(1)	
창작	무용창작론(법)(7), 안무법(4), 무용즉흥(6), 무용제작법(1), 무용구성법(3) 표현법(1), 무용연출(1), 무용연기법(1)	
교육	산학협동교육(1), 무용교수법(2), 무용교육(개론)(4), 사회무용교육방법론(1), 국제관련교사과정(1), 무용교수워크샵(1), 무용지도법(3), 특수무용교육(1), 실기교육방법론(1)	
체육	체육사(1), 체육원리(2), 인체해부학(1), 스포츠심리학(2), 운동생리학(1), 체육연구와통계(1), 운동역학(1), 체육교육론(1), 체육교재및지도법(1), 체육논리및논술(1)	
치료	무용요법(6), 신체요법(1)	
공연	공연기획경영(1), 예술경영(2), 무용공연프로젝트(2)	
융합	시와 무용(1)	
기타	무용학연구법(3), 민속학연구(1), 궁중정재(1), 종족무용학(1), 학교보건(1), 기독교와 무용(1), 예배무용워크샵(1)	
실기	한국무용	한국무용(10), 전통무용(6), 한국무용교육현장실습(2), 한국무용워크샵(4), 한국무용레퍼토리(2), 한국무용창작현장실습(1), 한국무용호출법(1)
	현대무용	현대무용(10), 현대무용실습(1), 현대무용교육현장실습(2), 현대무용워크샵(4), 현대무용레퍼토리(2), 현대무용창작현장실습(1)
	발레	발레(10), 발레레퍼토리(4), 발레교육현장실습(2), 발레워크샵(4), 컨템포러리 발레(1), 발레창작현장 실습(1), 모던발레(1)
	음악	타악실기(2) 전통타악실기(1)
	창작	창작실습(2), 무용연기실습(2), 발레창작워크샵(1), 한국무용창작워크샵(1), 현대무용창작워크샵(1)
	생활	재즈(4), 재즈뮤지컬, 댄스(1), 필라테스(스포츠험리티케어, 이미지)(4), 캐릭터댄스(1), 디지털댄스(1), 요가와명상(3), 댄스스포츠(1), 생활무용(1)
	취업	교육무용과 취업(1), 외국어특강(1), 인턴십과정(2)
	기타	무용Technology(3), 종합실기(1), 졸업작품(2), 무용전공실기(2), 무용전공실기(2), 실기워크샵(1), 분장실습(1), 민속무용(3), 종합구기(1), 노인신체무용(1), 아동지능발달무용(1)

분석한 실기 교과목의 특성을 살펴보면, 한국무용, 현대 무용, 발레 모두 각 대학이 개설해 운영하고 있었다. 특히 이들 3과목은 기초, 중급, 고급 혹은 I-X 등 다양한 등급으로 나누어 집중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를 모태로 일부 대학에서는 워크샵, 실습, 레퍼토리라는 과목명으로 확장해 개설해 운영하고 있었다. 다만, 대부분의 대학에서 전통 무용을 비중 있게

루어 개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무용전공 학과에서는 3가지 프로그램이 명확하게 구분해 운영되고 있는 관계로 이들 3전공 실기는 모든 대학에서 많은 시간을 할애해 중점적으로 지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악 실기의 경우 이론과 마찬가지로 일부 대학에서 타악 실기라는 과목 명칭으로 개설하고 있는 실정이다. 창작 실습과목은 많은 대학이 개설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아마 이론과 병행해 운영되는 일부 대학의 특성에 기인된 것으로 보여진다. 생활과 관련된 무용 실기 교과목은 재즈를 비롯해 요가, 필라테스 등이 개설되고 있지만, 전통 무용교과목에 비해 대학 채택률과 다양성에서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용전공 졸업생들의 실질적은 취업에 도움을 주기 위한 관련교과목은 일부대학에 국한되고, 또한 교과목도 무용교육과 취업, 인턴십 과정, 외국어특강 등 몇 과목에 불과하지만 전공 교과과정에 개설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 밖에 한 두 대학에서 노인과 아동을 대상으로 무용을 지도할 수 있도록 관련 교과목을 개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아 무용, 유치원 교사, 문화원 강사에 취업을 하는 현실을 감안해 볼 때 교과목의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4. 취업 기반 새로운 교과과정 모형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무용 전공자들의 취업 경로는 다양했다. 전반적으로 기존 교과과정은 무용 전공자들의 사회 취업에 완전하게 만족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사회에서 요구하는 무용 전문인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다양하고 광범위한 교육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새로운 교육과정 개발이 필요하다. [표 4]는 취업 직종을 기반으로 교과과정 개발 모형을 제안한 내용이다. 크게 전공과목과 취업에 관심을 갖고 개설되어야 할 교과목으로 분류했다. 관련교과목은 대표과목으로 이를 기반으로 기초부터 응용까지 광범위하게 운영할 수 있다고 본다.

지난 3년 동안 무용 전공자들의 취업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무용 관련 직종은 기존 교과과정으로도 충분히 만족을 시켜줄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선

정된 거의 대부분 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는 무용 전공 실기 및 이론 과목을 다양하게 운영해 기존의 교육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본다. 다만 강조되어야 할 내용은 취업에 앞서 현장 경험을 충분히 익히도록 다양한 인턴십 프로그램의 활성화가 필요할 것 이다. 앞서 제시한 대로 무용 인턴십 관련 프로그램을 교과과정에 이용하는 대학은 2개 대학에 불과한 실정이다. 취업 경로에 기반 할 때 유치원, 지자체 문화원, 무용단 등과 양해 각서를 통한 무용 인턴십 교과목의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성을 제기 한다.

표 4. 취업 지향 교과과정 모형

교과과목 편성 방향		관련 교과목	취업 시장
전공	실기	한국무용, 현대무용, 발레, 음악, 창작 및 연기 실습, 현장 인턴십 프로그램.	유치원, 유아원, 무용학원, 문화원, 무용단
	이론	무용학, 예술론, 무용사, 무용미학, 무용비평, 무용과학, 무대론, 의상론, 무용 음악, 창작과 안무, 무용 교육, 무용 요법	
취업	행사 기획	무용공연 기획, 예술 공연	행사 기획사
	자격증	댄스 스포츠, 레크레이션, 휘트니스, 요가, 필라테스, 인체 해부학, 운동 생리학, 운동 역학	휘트니스 센터, 요가원, 레크레이션 센터
	사무 및 정보 처리	행정학, 경영학, 비서학, 정보처리	비서직, 사무원, 조교직, 스포츠 관련 단체, 복지원
	외국어	외국어	
	융 • 복합	의상학, 아동학, 노인학, 사회복지, 무용 관련 융 • 복합 과목	유치원, 노인 요양원, 사회 복지원

무용 전공 졸업자들을 위한 좁은 취업 시장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일부 대학에서 운영되고 있는 교과과정을 광범위하게 확대할 영역으로 행사 기획 관련 교과목의 반영이 필요하리라 본다. 이와 관련 취업률은 아직은 낮은 편이지만 무용전공 졸업생들이 진출할 새로운 직업군으로 부각되고 있다할 수 있다. 또한 자격증 관련 교과목을 교육과정에 운영하거나 졸업 인증제 등을 통해 자격증 취득을 장려해 새로운 취업 시장 개

척에 기여하도록 전향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자격증 과목의 원리와 메카니즘을 이해하기 위해 일부 체육관련 과목의 개설 또한 필요하리라 본다. 현실적으로 자격증 관련 교과목은 체육전공 졸업생들의 소유물로 인식되어온 것이 사실이지만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직종에 취업한 무용전공 졸업생들이 다수 있는 것으로 보아 간과할 수 없는 영역으로 보인다. 따라서 관심을 갖고 관련교과목을 개설하거나 학점 이수제 등을 활용해야만 할 것을 제안 한다.

또한 무용 관련 다음으로 취업률이 높은 사무직 취업 경로를 반영한 교과과정 개발 혹은 일정한 학점 취득 권장 등에 관한 대책을 강구해 취업률을 향상시켜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필요도 있다 하겠다. 당장은 무용 전공 교과과정에 이들 관련 교과목을 운영하는 것은 정체성과 관련해 어려움이 수반되겠지만, 정보처리 과목과 비서학과 관련된 과목을 타과에서 일정 양의 학점을 취득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이 일부이긴 하지만 사회 요구에 적극적으로 부응하는 길이며, 이들 경로에 취업하는 무용 전공 졸업생들을 만족시켜주는 대책이라 할 수 있다. 그밖에 취업 경로를 고려해 제안하고자 하는 과목으로 아동학, 노인학, 의상학과 관련된 교과목 이 필요하리라 본다. 그동안 국내 대부분 무용관련 전공들은 무용학 중심으로 교과과정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전공의 경쟁력 강화와 대학 사회에 시장경쟁 원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취업과 관련한 교과과정 개발과 몇몇 과목에 대해 타 학과 학점 이수제 등을 적극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본다.

IV. 논의

단순한 지식 습득과 실기 연마가 아닌 종합적인 지식과 사유 능력을 가진 21세기가 요구하는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능력, 전문적사고력, 문제해결 능력, 위기대처능력과 전공에 대한 전문성, 사회적 책무성, 감성적 성숙도, 문화 지식 등의 종합적인 소양을 길러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대학에서 지식 창출하는데 있어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핵심역량과 사

회에서 요구되는 핵심역량을 함양하는 교과과정이 필요하다. 즉 대학은 능동적인 태도를 가지고 사회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지성인을 양성하기 위한 적절한 교과과정 개발과 운영이 필요하다. 이에 무용 전공 대학 교육도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핵심역량을 제고하는 교육으로 바꾸기 위하여 교과과정을 우선적으로 살펴본다. 개선, 개발할 필요가 있다.

사회의 요구에 따른 교과과정이 진로와 연관되어야 하고[4], 또한 사회 수요를 반영해 취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대학에서 무용 교과과정을 새롭게 구축하는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런 취지하에 본 연구는 경인 지역 10개 대학의 최근 3년간 취업률과 취업 경로 및 현행 운영하고 있는 교과 과정을 분석해 새로운 교과과정 모형을 제안했다.

본 연구 결과 무용전공 졸업생들의 취업률은 아주 낮은 편이었다. 실제적으로 취업률을 산정한 시기인 2010년도의 취업률은 20%대에 불과했다. 이 결과는 당해 연도 전국 체육학과 취업률 54%의 반에도 못 미치는 저조한 수치이다[16]. 본 연구가 선정된 대학이 수도권 소재 중심 대학을 선정해 분석했기 때문에 국내 무용전공 졸업생들의 취업률을 판단하는데 한계가 있겠지만, 분석에 지방 대학을 포함했다면 이 비율은 더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취업 경로 분석에서 무용수로 취업 하는 경우가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무용학원 강사, 유치원 교사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무용학과 졸업 후 현재 활동하고 있는 분야를 조사한 결과 학교 및 학원 강사가 32.7%, 다음으로 무직 및 프리랜서 32%, 대학원 진학 20%, 직업무용수 14%, 무용관련 직업 1.3%라고 제시한 선행 연구[11] 내용과는 약간 다른 취업 직종 순위를 보였다. 이와 같은 차이는 조사 시기와 방법 등의 차이에서 나타난 결과가 아닌가 생각된다. 그러나 무용전공 졸업생들의 희망진로를 묻는 연구에서 가장 선호하는 직종으로 무용수라고 답한 무용 전공자들의 진로를 위한 연구 결과와는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다[9].

낮은 취업률을 타개하기 위한 대책으로 그동안 무용 지도자, 예술가 양성에 전통적으로 주안점을 두고 있던

교과과정도 다양한 취업 시장 개발에 역점을 두고 개발해야 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현행 운영되고 있는 교과과정만으로도 무용전공 졸업생들의 전공과 취업 경로 일치가 거의 70%에 육박해 교과과정의 만족도가 크다 할 수 있지만, 문제는 낮은 취업률을 극복하는 방안이다. 무용 전공 졸업생들은 매년 2000여씩 배출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무용전공은 타 전공에 비해 취업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취업 직종 또한 지극히 한정되어 있는 형편이다[11].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무용전공 졸업생들이 다양한 분야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학교는 다양한 교과과정 개설을 통해 전문지식을 배양시키고, 새로운 취업 시장 개척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취업 경로 분석에서 무용관련 직종뿐만 아니라 사무직과 관련된 직에도 취업이 적지 않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조사된 바와 같이 스포츠 지도자나 사무직과 관련된 취업 시장을 반영한 교과과정 개발이 절실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현행 한 두 대학에서만 개설하고 있는 체육 교과목을 스포츠 지도에 필요한 지도법, 신체 구조와 기능에 관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자연과학적인 교과목을 개발하거나 타과에서 관련된 교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운영을 강조해야 할 것이다. 또한 사무직 중 취업 졸업생들을 위해 행정, 회계, 경영, IT 과목 등을 개설하거나 관련된 교과목들이 무용전공 교과과정에 개설이 여의치 않을 경우 일정 학점 이상을 교양이나 타 전공에서 취득하도록 해 사회요구에 부응할 필요성이 절실하다 하겠다. 사회의 요구를 반영한 교과과정 운용부족은 취업 시장 개척에 한계를 보일 것이다. 뿐만 아니라 취업 관련 직종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한 졸업생을 배출해 사회에 내보내는 것은 결국 대학에 대한 사회의 불만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한 선행 연구의 무용전공 재학생을 대상으로 취업인식도 조사에서 교과목과 진로와의 연계성 부족 등으로 취업에 대해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주장한 내용은 교과과정 운영과 관련해 시사 하는바가 크다 하겠다[15]. 이 연구에서 무용전공학생의 진로성향에 따라서 진로와 연관된 교과목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하고 있다.

현행 교과 과정 중에 많은 대학이 무용요법 교과목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지만 이와 관련된 취업 경로는 찾아볼 수 없었다. 이 교과목을 개설하기 위한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와 관련된 취업 시장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일환으로 다양한 전공 교수들의 페어링(pairing) 교육을 제안하고자 한다. 무용요법이란 과목을 동일한 시간에 무용과 정신 의학 전공의 두 교수가 함께 수업을 진행함으로써 두 분과 학문의 융합 시너지 효과 창출을 기대할 수도 있고, 취업 시장 개척을 꾀할 수도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교과목은 지식 기반이라기보다 취업 기반의 교과목이기 때문에 이런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그 외 무대 미술, 무용 음악, 분장법, 의상과 같은 교과목도 페어링 강의로 운영하면 복합적 예술 체험을 통한 창의적 개발과 체험형 교육을 도모할 것이다.

21세기는 글로벌, 디지털, 정보화 시대이다. 이들로부터 과생되는 정보량의 발전과 폭발적인 패러다임 쉬프트를 통해 모든 영역이 융합되고 통합되며 상호 작용하는 시대이다[7]. 이런 시대의 사회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무용전공 영역에서도 학문 간의 경계를 허물고 통합적인 사고를 함양하며 세분화된 분야들의 위상을 전체 속에서 가능할 수 있는 총체적 종합적인 사유능력을 기르는 교육에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다 할 수 있다. 고등교육의 새로운 정향에 맞추어 융·복합, 간학문 교육이념을 충실히 구현하기 위해서는 교과과정 개발 및 신교과목 및 융·복합 교과목 모델 확산 및 공유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학문 상호간의 새로운 복합과 융합을 모색하여 무용에 대한 학문적 시야를 확장하고, 취업 시장 개척에 일조하는 방안으로 핵심을 강화해야 한다.

생활과 관련된 무용 실기 교과목은 재즈를 비롯해 요가, 필라테스 등이 개설되고 있지만, 전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발레, 현대무용, 한국무용 프로그램에 비해 대학 채택률과 다양성에서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 무용에 있어서도 교과이수나 사회, 교육기관 연계프로그램을 통해 요가, 댄스스포츠, 필라테스 등의 다양한 자격증을 취득해 졸업 후 생활 스포츠 및 무용 지도자로서 취업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할 것이다 [16]. 특히 취업 경로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무용전공 영

역에서는 기존의 발레, 현대, 한국 무용의 프로그램에서 과감히 탈피해 생활 무용과 관련된 영역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취업 경로 분석에서 유아와 관련된 취업 영역과 문화원 강사직이 높은 비율은 아니지만 취업 직종으로 자리잡아가는 현실을 고려할 때 기존의 교과이외 순수무용으로서의 유아무용, 노인무용의 교과목을 개설해 유아 및 노인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한 무용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식과 실기 교육의 전문성을 키워주어야 할 것이다.

아직은 태동기라 할 수 있지만 각종 행사 기획과 관련된 취업 직종도 무용전공 졸업생들에게는 관심 있는 취업 직종으로 조사된바 공연 기획과 관련된 교과목도 다양하게 확장해 개설할 필요성이 있음을 제안하고자 한다.

전공교육의 학습 성과는 교과과정을 이수한 학생이 졸업 시 갖추어야 할 능력과 자질을 의미하며, 이는 전공교육의 직접적인 목표라고 볼 수 있다. 졸업생의 보다 나은 능력과 자질 배양을 위해 사회 진출에 필요한 관련과목들이 교과과정에 개설되도록 사회 요구에 부응하는 노력을 기울여 졸업생의 취업에 관심을 갖는 최적의 교과과정 운영이 필요하다.

V. 결론 및 제언

이 연구는 무용전공 졸업생들의 취업 실태인 취업률과 취업 경로를 분석해 현행 무용학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과과정이 무용전공 졸업생들의 취업 경로와 연관성이 있는가를 살펴보고 시장 지향적 무용전공 교과과정 모형을 제안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경인 지역 무용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10개 대학을 선정해 최근 3년 동안의 취업률과 취업 경로를 분석했으며, 이들 대학의 교과과정을 분석 했다. 이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무용관련전공 졸업생들의 취업률은 건강보험 가입 조건이 취업률 산정에 고려된 2010년도의 경우 20%대의 아주 낮은 취업률을 보였으며, 취업률의 비는

해마다 침체되고 있었다.

둘째, 취업 경로는 무용관련 직종이 과반 이상을 차지했고, 무용과 관련 없는 사무관련 직종과 스포츠 직종도 일정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셋째, 취직 경로에 맞춰 신체 구조와 기능과 관련된 체육과목, 자격증 과목, 행정, 경영, IT와 관련된 교과목, 융·복합 교과목, 공연 기획 관련 교과목, 아동 및 노인 관련 교과목 개설의 다양성과 확장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넷째, 취업 기반으로 개설된 교과목 중에 취업 시장에 기여하지 못하는 교과목은 이에 관련된 취업 시장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 결과 무용전공 졸업생들의 취업률은 아주 낮게 나타났다. 이를 타개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그 일환으로 무용 직종이외에 사무직, 스포츠 직, 유아 관련 직, 비서직, 공연 기획 관련 직 등에 필요한 새로운 교과과정 개발이 절실히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 교과목들이 무용전공 교과과정에 개설이 여의치 않을 경우 일정 학점이상을 타 전공에서 취득하도록 해 사회요구에 부응할 필요성이 절실하다 하겠다. 또한 현 교과과정에 거의 모든 대학들이 개설한 교과목 중에 전공기반 교과목이외에 취업에 도움이 되지 않는 교과목에 대해서는 다른 교과목으로 대체하거나 연관된 취업 시장을 개척할 자구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향후 이와 관련된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지방대학까지 분석해 일반화를 높일 필요성이 있으며, 또한 교양 과정의 교과과정도 분석해 전공과의 연계성, 취업과의 연계성 등에 대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을 제언하고자 한다.

참 고 문 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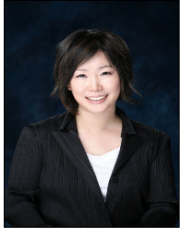
[1] 김광경, *무용전공특성에 따른 직업기대에 관한 연구*, 울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3.
 [2] 김영옥, "대학무용과의 교과과정과 취업에 대한 연구", *대한 무용학회*, 제53호, pp.24-37, 2007.
 [3] 박기선, *무용전공 대학생들의 취업인식도 및 교과*

과정 조사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3.
 [4] 양지현, *무용 교과과정에 대한 견해 차이에 따른 취업기대 분석*, 용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8.
 [5] 유봉호, *현대교육과정*, 서울, 대방출판사, 1982.
 [6] 유봉호, *현대교육과정*, 교학연구사, 1993.
 [7] 이승철, *대기업에서 바라보는 인재 상*, *대학교육* 7-8, Vol.166, 2010.
 [8] 이정식, *대학무용학과 교육과정에 관한 연구*, 경성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0.
 [9] 이정진, *무용 전공자들의 진로를 위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1.
 [10] 이정희, *대학 무용학과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기초 조사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4.
 [11] 이윤혜, *사회활동에 필요한 무용교과과정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12] 이성호, *대학교육과정론*, 서울 연세 대학출판부, 1992.
 [13] 이태현, *교과과정에 의한 사회 활동 방향*, 세종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5.
 [14] 정선미, *무용과 대학원 교과과정 체제 분석에 의한 전공별 진로 방향 모색-서울 시내 소재 및 경인지역 8개대학을 중심으로-*, *경희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1.
 [15] 최오일, *무용전공학생의 진로성향과 교과과정의 연계성 강화 방안*,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5.
 [16] 박선희, *대학 무용교육 교과과정에서의 지도자 양성을 위한 방향 모색*, 상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7.
 [17] <http://www.academyinfo.go.kr>.
 [18] 정미란, "국내 직업무용단의 웹사이트 콘텐츠 비교 분석", *한국콘텐츠학회*, 제7권, 제10호, pp.311-320, 2007.

저 자 소 개

최 윤 선(Youn-Sun Choi)

정회원



- 1986년 2월 : 한양대학교 체대학 무용학과
- 1990년 2월 : New York University 무용교육과(예술학 석사)
- 2000년 2월 : 한국체육대학교 (이학박사)
- 2003년 ~ 현재 : 서울기독대학교 무용학과 교수
<관심분야> : 무용, 교육, 교과과정